

에너지보안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고시) 제정

수용가 공급전력의 품질보장 위한 제도 구축

산업자원부는 전력시장체제하에서 수용가에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술적기준·의무 등을 규정한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발전·송전·배전회사로 분할운영될 전력시장에서 부문별 불균형투자 등으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어, 발전·송전·배전 부문별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명문화한 것.

본 고시의 제정으로 향후 전력설비 적정투자에 대한 근거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전력계통 운영자가 효율적·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의 범위가 명확해 졌다.

이번에 시행하는 동 고시는 발전회사, 한전, 전력거래소 등 이해관계자 및 학계·연구계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견수렴 및 전기위 산하 전력계통 및 신뢰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03년 4월 2일자로 시행됐다.

컬러TV 수출, 이날로그에서 디지털 TV로 세대교체

수출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

금년 1, 2월 중 디지털 TV(셋트기준)

수출은 120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186% 급증세를 보여 수출주력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디지털 TV가 전체 컬러TV 수출의 54.3%를 차지하여 아날로그 TV와 완전히 세대 교체를 이루었다.

디지털TV가 수출주력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2001년부터 시작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실시로 인해 내수 시장에서 국산 디지털TV의 품질이 안정됐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디지털TV 방송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세계 디지털TV 시장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2003년도 실행계획 확정·공고

424억원의 정부출연금 지원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2일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심의회를 거쳐 2003년도에 추진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에 총 424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기술개발은 에너지정책 및 보급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고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형사업인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중점 지원한다.

청정에너지기술개발은 향후 국내 환경규제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산업계의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자원기술개발은 미래형 기반기술 및 선진국의 전략적 무기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대상으로 중·대형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 ※ 분야별 2003년도 지원계획
-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 211억원
-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 80억원
- 자원기술개발사업 : 59억원
- 기술기반조성사업 등 : 73억원

'03. 2월중 휘발유·납사소비 각각 10.0%, 8.1% 감소

석유제품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부담지수가 가장 민감한 휘발유의 소비가 전년 동월대비 10.0% 감소하였고, 석유제품 소비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납사는 가격 급등으로 채산성 악화를 우려한 석유화학사의 가동을 감소로 소비가 8.1%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송용 경유·LPG와 발전용 수요가 증가한 B-C유 소비는 증가했다.

석유제품 소비의 49%(2002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소비가 납사 및 열원용 연료유인 등·경유의 소비감소로 5.4% 감소하여, LNG 수급 차질에 따라 대체 사용된 발전용 수요 증가분(2백만B)을 제외하면 2월중 국내석유제품 소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원유도입량은 전년동월대비 11.3% 감소한 62.7백만B로 2000년 이후 고유가 지속 및 석유제품의 소비 증가 둔화 수입 증가와 일부 정유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가동을 하향 조정 등으로 인해 원유도입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03년 2월은 유가 급등에 따라 원유 수입 감소가 더욱 확대됐다.

The Best Boiler



콘덴싱보일러

DME Type CONDENSING BOILER

- ▶ ISO 9001인증 획득
- ▶ 중국인제품질서인(CSQA)
- ▶ 국립기술품질원 EMARK 획득제품
-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 100%공인
- ▶ 공기조화냉동공학회 기술상 수상
- ▶ 1999 에너지 워너상 수상
- ▶ 2000 대한민국 에너지대상 수상
- ▶ 고효율 에너지기저재 인증획득(보일러1호)
-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획득제품
- ▶ 국내외 최대 실적

제작용량

- ▷ 스팀 1~20 T/Hr
- ▷ 중온수 1~13 Geal/Hr
- ▷ 연료 : LNG



1993.3.16 KBS뉴스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개발

관류보일러



싱크로 히타



진공보일러



▶ 대열 산업용 콘덴싱 보일러는

- 배기가스중에 포함되어 있는 현열과 잠열을 회수하여 에너지 효율을 100%이상 향상시킨 보일러입니다.
- 10%이상 절약되는 에너지 대금으로 3년내에 보일러 투자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보일러로 ESCO 사업에 적극 추천합니다.
- 고효율 에너지기저재 인증받은 보일러입니다. 설치자금은 연리 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가스중에 포함된 CO2 및 NOx는 응축수에 녹아 들어가 그 양을 40%이상 저감시키는환경친화적인 보일러입니다.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 획득으로 관공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보일러입니다.
- 사용처 : 공장, 호텔, 학교, 빌딩, 아파트(중앙난방식), 스포츠 센터 등 공정 및 난방 급탕용

2003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올해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사업, 241억 지원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30일 서울 양재동 농업무역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프로젝트형 기술개발, 일반기술개발, 선행연구사업 지원계획 등 2003년도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행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대체에너지기술개발에 총 241억(신규 65억원)이 지원되며, 이번 공모 기술개발과제 중 보급 가능성 및 시장잠재력이 큰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기존의 3대 중점분야는 확대·개편하여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기반기술을 선정·지원하는 일반 기술개발사업은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기술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의 기술검토 등을 통하여 최종 도출된 과제로서, 바이오, 소수력, 수소 등 7개분야 7개 과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공모과제 이외의 과제도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개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공고된 기술개발과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는 선행연구사업으로 프리즘형 태양열·광의 복합집열기 개발을 계속지원하고 자유공모에 의해 차의성 및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신규 지원한다.

신규지원과제 중 일반기술사업 및 선행연구사업은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일정 및 방안에 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추후 별도 안내예정.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개발지원처에서 사업계획서를 인터넷(http://www.energy.or.kr)으로 접수하면 되고, 전문가의 공개평가 등 심의를 거쳐 2003년 6, 7월 중에 지원과제를 확정 협약 예정이다.

중국산 일회용포켓라이터에 대한 종료재심사결과

현행 덤핑방지관세, 향후 5년간 연장 결정

무역위원회는 2003년 4월 23일 한국

라이타공업협동조합(대표 장대홍)이 신청한 중국산 일회용 포켓라이터에 대해 종료재심사 결과 중국 수출업체별로 36.4%에서 65.31%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하여 부과토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97년부터 구보가중인 중국산 일회용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와 종료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무역위원회가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판정은 중국산일회용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일회용라이터의 재판매가가 개당 54원으로 인하되어 국산품가격보다 35% 낮아 덤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수출능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 '사내벤처 1호' 출범

방부식 진단 및 컨설팅사업 창업

한국가스공사(사장 김명규)는 지난 달 5일 본사 1층 세미나실에서 공사사내벤처 1호의 출범을 위한 창업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체결한 '방부식 진단 및 컨설팅사업'에 대한 창업협약에 의거하여 지난달 말 벤처기업을 설립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사내벤처육성규정을 제정하고 사내벤처 사업계획을 공모하였으며, 10월말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 평가와 심의를 거쳐 방부식 진단 및 컨설팅 사업을 지원키로 결정한 후 지난 2월 7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다. 방부식 진단 및 컨설팅 사업은 방식/부식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업체에 진단, 보수,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지식 산업으로서 올해 매출액 13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연 114억원의 매출액에 22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측은 "산업이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미 1950년대부터 방부식 진단 컨설팅 관련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이번 사업이 최초로서 시장잠재력이 크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자계획에 따르면 방부식 진단 및 컨설팅사업을 전문기술용역사업과 제품제조 및 판매사업으로 구분하고 납입자본금 3억원 중 가스공사가 19.9%인 5,970만원을 현금출자한다. 이 과정에서 설립자본금의 일정지분을 공사 직원에 배정함으로써 직원들이 벤처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에너지신문

이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벤처기업 출범과 관련, 회사 보유기술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수익성 높은 사내벤처육성과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직원의 자기발전 동기 부여 및 적극적 기업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에너지, 세계 최대 매립가스 발전소 건설

매립가스 이용 연간 3억9천만kWh 전기 생산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인 김포에너지(대표 박정인)는 지난달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매립가스를 이용한 50MW급 가스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 일대의 수도권 매립지에 건설될 이 발전소는 제1, 2매립장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126만톤배의 매립가스를 이용, 연간 3억9천만 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스팀터빈 발전소이다. 올해말 착공해 2005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열보일러, 정부조달우수제품 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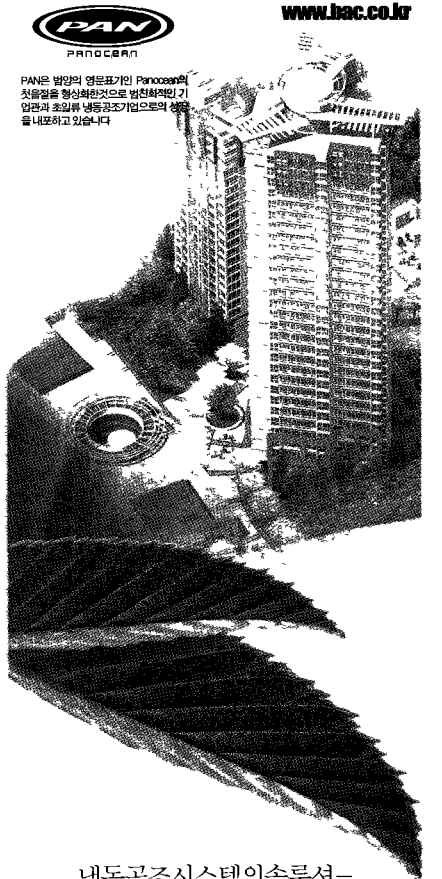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제품우수성 홍보

대열보일러(대표 차전환)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정부조달우수제품전에 자사의 콘덴싱보일러, 인공지능 관류보일러 등을 전시해 공공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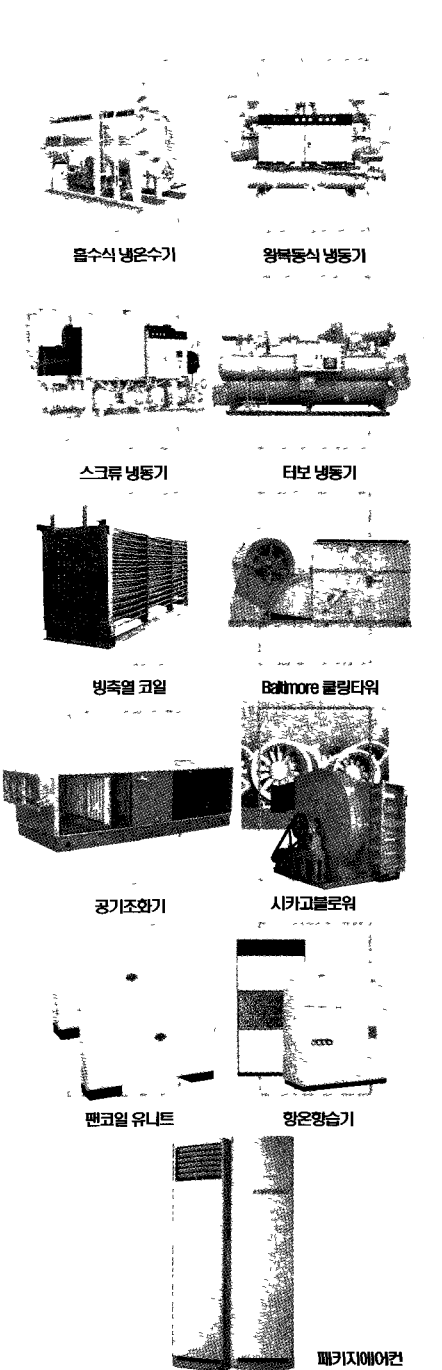
차전환 사장은 "조달청 우수제품인증을 비롯 ISO 9001인증, EM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에너지위너상, 대한민국에너지대상 등 각종 인증과 상패를 획득하여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된 대열 콘덴싱보일러는 관공서 및 지자체 등으로의 시장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달청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이 전시회는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제품 개발·생산업체,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 획득업체, KT마트 인증업체 등 170여사가 참여하는 행사다.

광고게재안내
T.(02)2679-6343



냉동공조시스템의솔루션- 판오션 에어컨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 고객상담실 : (02)401-4321, 555-0101(교:761-763)
◆ 글로벌서비스 : 080-022-8815-6